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⑬

육근 중 안근만 의지해도 수행 가능

云何名眼見色時修觀 應作是念 隨有所見 即
相空寂 所以者何 於彼根塵空明之中 各無所見
亦無分別 和合因緣 出生眼識

다음으로는 색을 볼 때에 수행하는 관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
다. 내 감정에 위배되거나 순종하거나 위배되
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이 세 종류의 색은 보는
데 따라 허공 꽃, 들속에 어린 달,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등과 같아서 본래 스스로 공적
하여 끝내 털끝만큼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근(根) 진塵(眞塵) 공(空) 명(明) 등은 각자 보는
바가 없고 또한 분별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정물로서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분별
이 없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안식을 이끌어내
는 보조의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눈의 측면
에서 논해보자면 눈은 볼 수 있는 안근이 있고
보이는 색진이 있다. 외부를 볼 때 보이는 색
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떠나서 색진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부의 육안으로는 환하게 본다해도 한 푼,
한 치의 간격을 통과하지 못하며 또한 꺾꺾하
게 어두워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반드시 여
러 가지 외부 인연이 화합해야만 사물을 바라
볼 수 있는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색은 사물을 명료하게 식별한다는 의
미인데, 이는 일체 제법을 관조하고 명료하게
분별하기 때문이다.

안식은 안근과 색진이 인연이 되어 일어난
다. 눈은 안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안근은 안
식으로 인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는 “안식은 아
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화합해야만 일어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만 일어난
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광명 공간 근 진 등 네 가지 조건만을 말하고
있겠는가. 이는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일 뿐
이다.

여기에서는 아홉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안
식이 일어난다는 의미에 대해 대략 살펴보기

로 한다.
아홉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안식이 일어난
다고 했는데, 연(緣)은 보조해서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말해보자면 광명 공간 근
경 등의 보조조건이 화합하여 안 이 비 설 등
여덟 종류의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 등 전오식은 제팔식 상분을 의지해서 건립
되고, 제팔식 종자를 따라서 일어나며, 광명
공간 등 모든 경계를 자체 모습으로 삼기 때문
이다.

육식은 팔식상분과의 인연으로 일어나고,
오진경계를 취하여 분별하며, 칠식을 의지해
서 집취한다. 제칠식은 제팔식 견분과의 인연
으로 일어나며 제육식의 염정법을 전환하여
그를 의지한다. 제팔식은 모든 식의 근본이다.
세간과 출세간 등의 일체법 종자를 함장하며
제칠식을 의지해서 전오근 오식을 의탁하고

드러낼 수 있다. 눈은 공간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귀도 공간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만
일 공간이 없다면 눈과 귀 등 두개의 식은 발
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공간은 안식과 이식
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세 번째는 근연(根緣)이다. 근이란 안 이 등
오근을 말한다. 안식은 안근을 의지해서 볼 수
있으며 신식은 신근을 의지해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가령 오근이 없다면 전오식은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된다. 따라서 오근은 오식이 의지
하는 보조조건이다.

네 번째는 경연(境緣)이다. 경은 오진경계를
말한다. 안 등 오근이 비록 보고 듣고 냄새를 맡
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오식을 갖추기는 했
으나 이 오식에 상대되는 색 등 오진이 마주하
지 않으면 오식이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때문에 경은 오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식과 인연은 상호 관계성으로 일어나 안식은 모든 인연 화합해야 볼수 있어

전환하는 것으로서 자체 모습을 삼는다.

이를 따라 알 수 있는 것은 식은 조건을 깔
고 일어나며, 그 보조인연은 다시 식을 깔고
있어 이 두 가지는 서로 서로 의지관계를 이룬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이 일어나는 조건은
많고 적음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안식은 아
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화합해야만 일어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일어나는
고 말을 하였다.

안식을 일으키는 구연(九緣)에 대해 설명해
보자.

첫 번째는 명연(明緣)이다. 광명은 해와 달
을 말한다. 광명은 모든 색상을 환하게 나타낼
수 있다. 눈은 광명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며
광명이 없다면 안식이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
서 광명은 안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두 번째는 공연(空緣)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결핍이 없어 모든 색상을 환하게

다섯 번째는 작의연(作意緣)이다. 수 상 행
등 심소가 발현하면 대상경계에 주의를 기울
이고 살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눈이 처음
색경을 마주했을 때 바로 지각하고 살피라는
마음이 일어나 그 마음을 이끌고 인식대상경
계로 나아가 제육식으로 하여금 그 대상경계
는 선이다. 약이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게 한다.
나머지 이 비 설 신 등 네 가지 근도 역시 이와
같다. 이 때문에 일체 시간과 모든 경계에서 지
각하고 살피는 마음이 두루 보편하게 활동하
는 것은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계하는
작의(作意)심소의 작용이다. 따라서 작의심소
는 안 등 육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여섯 번째는 근본의연(根本緣)이다. 근본
은 제팔식 상분경계를 의지하여 일어나
고 제팔식 상분은 안 등 육식을 의탁하여 일어

난다. 따라서 근본의는 육식을 일으키는 보조
조건이다.

일곱 번째는 염정의연(染淨緣)이다. 염정
의는 제칠팔식을 말한다. 일체 염정제법이
모두 팔라식을 의지하여 염법으로도 정법
으로도 전환한다. 안 등 육식이 색 성 등 육진경
계에서 모든 번뇌와 흑업을 일으키면 이 번뇌
염법이 전환하여 제팔식으로 들어가 유루생
사법이 된다. 만일 육식이 모든 청정한 도품을
수행한다면 이 청정한 도품을 전환하여 제팔
식으로 귀결되어 무무열반법을 성취한다. 그
때문에 제칠식을 염법과 정법이 번갈아 의지
한다하여 염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칠식은 팔
식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팔식은 칠식을 의지
하여 인연을 따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다. 때문에 염정의는 안 등 팔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여덟 번째 분별의연(分別緣)이다. 분별은
제육식의식을 말한다. 이 식은 선 악 유루 무루
색신 등 제법을 분별한다. 안 등 오근이 비록
오진경계를 취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별
하지 못하고 모두가 제육의식을 의지하여 분
별을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오근이 오진경계의
좋고 나쁨을 마주하게 되면 육식분별을 따라
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제칠식의 염정도 육식
분별을 따라서 알며 제팔식의 상분도 육식분
별을 따라서 나타난다. 때문에 분별의는 안 등
팔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아홉 번째는 종자연(種子緣)이다. 종자는 안
등 팔식의 종자를 말한다. 안식은 안근종자를
의지해서 색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육식도 여
기에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칠식은 염
정종자를 의지해서 간단없이 상속할 수 있고
제팔식은 제법종자를 함장함으로써 일체제법
을 출생할 수 있어 모든 식은 각자 자체종자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종자는 안근 등 모
든 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갖추어져야만 안식을 출생할 수 있다.

■중상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육종무위법(六種無爲法)

‘무위법(無爲法)’은 세간과 출세간 등 일체
제법의 자체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상주하여 인연에 따른 생멸이 없
으며 일체 인위적인 업력의 조작이 없기 때문
에 자성은 항상 고요 적정하여 시끄럽게 요동
하는 유위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조작[爲]이 없다는 의미인 ‘무
위’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허공 택일 비택일 부동 상수물 진여 등 여섯
종류의 무위법(六種無爲法)에 대해 개략적인
의미만을 서술해보겠습니다.

허공은 모든 색법의 조작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 성질은 공적하여 생멸이
없기 때문에 ‘허공무위’라고 합니다.

‘비택일무위’는 유위법 가운데서도 유위법
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즉 인연이 일시적으로
결손되었을 경우 그 자체는 일시적이나마 공적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위법의 범주
에 포함됩니다.

괴로움이 떠난 적정한 상태는 번뇌가 영원히
끊겨 잡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택일무위’
라고 합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증득된 깨달음
의 경지를 말합니다.

‘부동무위’는 괴로움과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을
떠나 그 어느 쪽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
를 말합니다. 이는 인천유루선정(天有漏禪定)
에 해당됩니다.

부동무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감각의
상태인 사수(捨受)마저 버린 상태에서 삼고(三
捨)를 모두 떠난 고요 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상수물무위’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내의
소승이 닦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天)의 선
정에 해당되며 유루와 무루에 두루 통합니다.

‘진여무위’는 일체법 구경의 진리입니다. 진
여의 이치는 무아(無我) 실성(實性) 무상(無相)
실제(實際) 중도법계(中道法界)로서 추구하게
상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체법에 보편하기 때
문에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유식론’에서는 육종무위가 모두 진여를 의
지해서 건립된다고 합니다. 유위법은 일체사상
(一切事相)에, 무위법은 일체사상의 이성(理性)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事]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치[理]가 있게 되어 유위법을 떠난 밖에
따로의 무위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
지는 부즉불리(不即不異)하고 비일비이(非一非
異)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위법 밖에 따로 무위
법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배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인 정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인터넛으로 공부하십시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넛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읽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 전행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